

나의 어린 시절의 현실은 학교에서 배운 양성평등 교육과는 전혀 달랐다. 명절만 되면 친할머니 댁 부엌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하시는 어머니와 아무것도 안하시고 그저 누워계시는 아버지와 삼촌들의 모습. 그리고 외할머니 댁은 몇 년에 한 번씩 가시면서도 친할머니 댁에는 매해 며칠씩 머물다 오시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어린 내가 보아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같았다. 행복한 명절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버터진다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고생이 고스란히 녹아진 손 주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훔치시던 눈물의 잔상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남편을 만나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내게 설렘도 주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힘들어하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만들기도 했다. 나도 모르는 새 방어기제를 빠르게 세우고 혹시나 몰라 날을 세우며 남편과 기싸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내게 남은 건 오히려 상처 입고 힘들어 하는 내 모습이었다.

나와 같은 시대에서 배우고 자란 남편은 기존의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함께’ 라는건 당연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새벽마다 일어나 자물자물한 눈으로 분유를 준비하였고, 아이들의 행사마다 늘 함께 하고, 먼저 여유가 된다면 그만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집안일을 담당했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은 ‘보조자’ 가 아니라 아빠라는 ‘주인공’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엄마에게는 참 유별난 것처럼 보였나보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한만큼 예전의 관습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바뀌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던 나의 말에 친정엄마는 잠시 침묵하셨다. 한참을 입술만 들썩이시던 엄마는 ”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참는데 너만 너무 유별나게 굴면 힘들어진다. “라고 하셨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다들 그렇게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다들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니, 그게 맞는 건가? 내가 이상한건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에 나는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열심히 노를 저어 앞으로는 가고 있지만, 이 방향이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가 가장 공을 들인 투쟁은 바로 우리 집의 새로운 명절 문화 만들기였다. 한 번에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교회로 나들이 가서 좋아하시는 멋진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라고 하는 남편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쭈뼛쭈뼛하시던 시어머니의 손에 향기로운 커피 향과 밖으로 나와 즐거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귀여드린 날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좋은 카페에서 손녀들과 웃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던 시어머니께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 순간, 오래된 관습에 기분 좋은 균열이 생겼다. 이젠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신다. “여기 근처 카페가 그렇게 커피가 맛있고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 이번 추석에는 거기로 가볼까?”

이 외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그 당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세상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귀까지 빨개지던 남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한번은 설득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러다 혈압이 올라서 드라마처럼 뒷목 잡는 게 아닐까

몰라” 라고 하며 서로 차에서 실컷 웃었다.

친정엄마 역시 당신이 겪은 옛 시절과 달리,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는 우리의 모습을 훨씬 좋아하신다. 우리의 유별남을 걱정하던 엄마의 침묵 속에는 당신이 견디어온 세월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평생 배운 적도, 참고할 대상도 없었기에,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스스로를 버텨온 세월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의 변화로 웃으시는 엄마를 보며,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겪어오며 우리 부부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바로 롤모델의 부재였다. 삶의 모습으로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시선이 갔다.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내가 배워왔던 이론 교육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현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 주기로 했다.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었기에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양성평등’이라는 4글자를 글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역설적이게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산소를 눈으로 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산소라는 걸 체화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양성평등이 언급될 필요 없이 몸에 배어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도 우린 삶으로 증명한다.